

하늘반 이야기 (11월 3주~11월 4주)



산소리 숲속학교에도 노랑노랑 울긋울긋 가을이 왔어요.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게임도 하고 모래 놀이도 했습니다. 높은 산에 올라갈 친구와 숲속 놀이터에서 놀 친구를 물어보았더니 세은, 설아, 지아는 산에 올라간다고 하고 세영, 민을, 민서는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해서 헤어졌다가 만났답니다. 산에 다녀온 아이들은 산이 높았으며, 나무도 많았으며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^^ (11월 18일 산소리숲속학교)



급식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교육을 해주셨어요. 편식하는 아이 동화를 보고 식품구성자전거로 이야기 나눈 후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스로 잘 붙였어요. 가끔 안 먹는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유치원 냉장고에 붙어있는 식품구성자전거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잘 먹는 비슷한 음식 이야기를 하면 “아~ 그 맛이구나.”, “그거랑 같구나.” 하면서 먹는답니다~ (11월 21일 급식자원센터영양교육)



안전체험관에서 지진, 태풍, 불이 난 상황, 물에 빠진 상황 등에 대해 안전체험을 했어요.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체험도 했는데 가장 재미있었다고 해요. 지진 체험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쿠션을 머리에 쓰고 통이 흔들리는게 재미있다고 말했어요.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학교에서 방송을 들으며 지진 체험 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(11월 22일 임실 119안전체험관)



집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는 상황은 퀴즈로 풀어 보고 밖에서 위험한 상황은 직접 체험 해보았어요. 장애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답니다. (11월 27일 장애이해체험)